

아시안 에스닉 룩의 조형성과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권하진* · 김민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아시안 에스닉 룩이란 에스닉 룩의 장르 안에서 특히 아시아 민속복식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동, 인도, 한국, 중국, 일본을 설정하여 각 나라의 민속복식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 선정된 나라의 민속복식에서 영향을 받은 현대의 서양 디자이너들과 동양 디자이너들이 해석하는 아시안 에스닉 룩의 조형성과 미적가치를 고찰하였다. 조형성을 살펴보는 기준으로 크게 물리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른 조형성과 인체의 인지에 따른 조형성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는 테일러드형/드레이프형/혼합형/요유형/수포형/관두형/전개형/체형형, 구조적/비구조적 착장, 인체 우선형/복식 우선형, 원피스/투피스의 기준으로 살펴보았고 미적가치에 대한 기준으로 각국의 종교관과 자연관에 따른 몸에 대한 미의식을 바탕으로 복식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1990년대 이후의 아시안 에스닉 룩의 조형성과 미적가치를 중동풍, 인도풍, 한국풍, 중국풍, 일본풍으로 나누어 서양 디자이너들의 해석을 살펴보았고, 각 나라의 동양 디자이너들을 설정하여 그들이 해석한 아시안 에스닉 룩을 살펴봄으로써 서양과 동양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조형성에 따른 결과로 중동, 인도는 드레이프형, 비구조적 착장, 복식 우선형이 나타나며 중동은 원피스에 관두형을, 인도는 원피스/투피스 그리고 수포형의 세부적인 형태가 나타났다. 한국, 중국, 일본은 혼합형으로 나뉘며 비구조적 착장, 드레이프형, 복식 우선형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으로 한국, 중국은 전개형, 수포형 그리고 투피스에 해당되며 일본은 전개형과 원피스 형태임을 관찰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종교관에 따른 미적가치로는 감춤의 미와 여백의 미가 공통적인 부분으로 나타났고 이는 인간의 윤리성에 대한 강조, 탈속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자연관에 따른 미적가치로는 상징적

인 미, 자연의 미, 여백의 미가 나타났고 이는 자연 숭배사상과 음양오행사상을 바탕으로 마음과 몸과 자연의 일원론(一原論), 우주 안에서의 공동체라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민속복식의 조형성과 미적가치를 토대로 1990년대 이후의 서양 디자이너들의 아시안 에스닉 룩을 살펴본 결과 전통적인 동양의 모티브의 사용이 가장 두드러지고는 있으나 인체의 라인을 드러내며 서양의 '미'의 기준인 '채움의 미'에 충족하기 위한 구조적 착장과 인체 우선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들은 동양을 신비한 꿈의 이미지, 이국적인 존재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기 위해 이미지화 된 장식적인 역할로서 현대의 서양을 좀 더 새롭게 만들기 위한 이미지로 해석하였다. 없음의 미, 여백의 미, 정신적인 복식에 대한 철학적 의미는 결여된 채, 서양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요소로서 서양의 우수성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을 동양을 사용하여 내포하였다. 반면 동양 디자이너들이 자국의 민속복식을 바탕으로 해석한 아시안 에스닉 룩은 전통적인 비구조적 착장과 복식 우선형이 유지되었다. 그들은 인체를 감싸며 생기는 공간의 미, 여백의 미, 자연의 미를 충분히 적용하였고, 장식성은 간소화 되었으나 몸을 전체로 보고 해석하며 인위적으로 인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유와 차분함, 여성스러움, 그리고 자연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를 바탕으로 '동양적인 사고', '동양적인 미', '가장 동양적인 것'을 통해 동양을 동양 그 자체로 보는 순수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세계가 하나이고 글로벌이즘이 강조되고 있다 해도 서양과 동양이 생성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는 정신적인 문화의 차이로서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단지 보여 지는 겉모습만을 이해할 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사고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